

4. 일본 유학 시절 (1940~1944)

1940년(19세) 4월 1일 나운영은 일본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동경 제국 고등음악학교 예과(예비과정)에 응시하였는데 수석으로 합격하자 예과를 거치지 말고 직접 본과로 가라고 해서 본과 시험을 다시 보았다.¹⁸⁾



본과에 입학하여 작곡과에서 파리 음악원 출신의 히라오 기시오(平尾貴四男, 1907-1953)선생에게 사사하였고, 당시 일본 최고의 작곡가인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 1903~1977) 선생에게 작곡학을 사사하였다. 나운영은 부전공으로 첼로를 택해서 이강렬, 전봉초와 함께 레슨을 받는 한편, 김치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동경 신주쿠에 있는 한국인 교회 신주쿠 쓰노하즈(新宿 角筈) 교회 성가대 지휘자에 취임하였다.

책을 사들이는 것과 음악감상실에 드나드는 것은 일본에 와서도 줄곧 계속되었는데, 그 당시 5전(錢)이면 점심요기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나운영은 그 돈을 아껴서 악보와 이론서적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스코어(總譜)는 베토벤과 같은 고전음악보다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크세네크의 「현악 4중주곡 제3번」, 베베른의 「현악 3중주」 같은 현대작품을 주로 사 모았다. 그리고 교향악단 정기공연이 있으면 미리 스코어를 사 가지고 악곡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음악감상실에 가서 매일같이 들어 보고 나서야 연주회에 갔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이에 고전, 낭만의 스코어까지도 자연스럽게 모으게 되었고 또한 바르토크의 「현악 4중주곡 제1번」, 스트라빈스키의 「결혼」, 베르그의 「서정조곡」 등의 현대음악에 깊이 심취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스코어 연구와 음악감상을 통해 실력을 기르게 된다.¹⁹⁾

1941년(20세) 6월 「Concerto Grosso for String Orchestra」를 작곡하였는데 후에 이 곡은 소각하였다.

18) 1986 KBS TV '11시에 만납시다' 인터뷰 내용

19) 수상집 1집 '주제와 변주' 238~239쪽

1942년(21세) 4월 30일 「Exotic Suite for Piano」를 작곡하였는데, 악보에 Op.1로 적혀 있다. 나운영은 1963년 10월 25일 이상사에서 출판한 『표준피아노명곡집』 부록으로 이 작품을 실으면서 이 곡에 대한 해설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 곡은 나의 음악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 작곡된 소품이다. 다소 그로테스크한 「프롤로그」, 일본 풍의 「차르메라」, 아라비아 풍의 원시적인 「무곡」, 불란서 풍의 정적이며 우아한 「멜로디」, 야성적인 코사크 풍의 「무곡」 - 이상 5곡으로 된 이 작품은 즉흥성을 띤 한 폭의 스케치이다.



[유학시절 김대현과 함께]

5월 13일 「Rhapsody for Piano」를 작곡하였다. 이 곡은 Fantasy & Dance로서 전음음계 · 전음화음 · 무조적 선율 · 장3도 음정의 병행법 등으로 되어 있으며 드뷔시 · 바르톡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 작품이다.²⁰⁾

8월 10일 「String Quartet No.1 'Romantic」을 작곡하였는데, 전 3악장으로 된 이 곡은 9월 25일 **제국 고등 음악학교 본과를 졸업할 때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곡이다.** 무조적 선율 · 후기낭만파적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바르톡 · 쉰베르그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²¹⁾

10월 1일 **제국 고등음악학교 연구과(요즘으로 치면 대학원에 해당) 작곡과에 입학하였다.**

1943년(22세) 3월 1일 **제국 고등음악학교 연구과를 다니며**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선생에게 계속 개인레슨을 받았는데, 스승은 작곡 레슨 때마다 “어째서 서양음악을 모방하려고만 드느냐? 너희의 음악, 너희 나라의 민족음악을 만들어 내라”는 충고를 해 주셨다.

이때부터 나운영은 세계성을 띤 한국적 현대음악을 창조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즉 민족성과 시대성을 떠난 음악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국악—특히 속악(俗樂)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한편, 서양 현대음악을 힘써 듣기 시작하여 무쏘르그스키, 드뷔시, 블로흐, 팔

20)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5쪽

21)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5쪽

라, 바르토크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²²⁾

그러나 나운영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고 있을 그 당시 동경東京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다. 태평양 전쟁의 말기로 인해 폭격이 심해져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상황도 아니었고, 자칫 학도병으로 끌려갈 위험도 있어 나운영은 결국 연구과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 직후 전시체제戰時體制라 어떤 직장이든 속히 취직을 해야만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황해도 평산 국민학교 분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3일간 삼각동회 사무소 서기²³⁾ 등을 해 보기도 하였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결국 그만두고 만다.

6월부터 **조선 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에서 **민완식**(閔完植)선생에게 **양금 교습**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스트라빈스키의 「The Wedding (Les Noces)」에 심취한다.

같은 해 **채동선 현악 4중주단에 입단**하여 채동선(蔡東鮮, 1901~1953), 이영세(李永世), 윤낙순(尹樂淳)과 함께 현악4중주단을 구성하였는데, 나운영은 첼로를 맡아 한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였고, 이때 채동선 선생 밑에서 아카데미한 음악연주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시절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날인가 나운영은 현악4중주 연습이 끝난 뒤 김인수(金仁洙, 1912~1959) 선생 댁을 방문하였다. 김인수 선생은 마침 하르빈哈爾濱 교향악단의 첼로 차석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신 직후였다. 나운영은 예전에 하르빈 교향악단이 서울에서 연주할 때 음악회에 갔다가 백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나라 사람을 발견하였었다. 나운영은 이 분은 진정 우리나라를 빛내는 분이라 내심 생각하고 존경하였었는데, 이 김인수 선생이 귀국하였다고 하자 그 때 그 감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방문한 것이다.

마침 김인수 선생은 돈암동에 집을 마련하고 미처 짐을 풀지도 못하고 계실 때였으나, 예고도 없이 찾아간 낮모를 어린 후배를 반갑게 영접해 주시고 음악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특히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곡」 레코드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여 들려주시면서 감격어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선생이 어찌도 열심히 해설을 해 주셨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도취되었다고 한다. 당시 나운영은 마포 종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집에 돌아갈 일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김인수 선생은 이런 사정은 모르는 채 오로지 실내악의 진수를 느끼게 해 주려고 계속 레코드를 들려주며 설명을 해 주셨다. 나운영도 이런 김인수 선생의 진심어린 열정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전차도 끊어져 버린 시간, 캄캄한 밤중에 홀로 무거운 첼로를 메고 돈암동에서

22) 수상집 2집 '독백과 대화' 107~108쪽

23) 나운영 자서전 자료 메모 2

마포 종점까지 홀로 걸어오면서 나운영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마냥 선생의 말씀을 되짚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왔다고 한다.²⁴⁾ 나운영은 같은 해 **혜화동 성당 성가대 지휘자에 취임**하였다.

1944년(23세) 4월 학도병으로 징집될 뻔 했으나 3월생이라 간신히 모면하고 확실하게 징용을 피하기 위해 **현제명**(玄濟明, 1902~1960) 선생이 주재主宰하고 있던 **경성후생악단**京城厚生樂團에 **첼로 주자로 입단**하였다가 **넉 달 후인 8월 경성후생악단을 퇴단**하였다.²⁵⁾

나운영은 이후 3개월간 포장조합 서기일을 하기도 하고 6개월간 동인중학원 강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²⁶⁾

6월 4일 **혜화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으며 한때 신부가 될 생각을 하여 겨울에 원산에 있는 덕원수도원으로 가려는 생각을 해 볼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피아노 옆 첼로 주자가 나운영, 피아노 뒤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유경순]

24) 나운영 수상집 2집 '독백과 대화' 197쪽

25) 나운영은 1944년 4월 경성후생악단에 입단하였다가 8월에 퇴단했다고 자신이 작성한 년보에서 밝히고 있지만 1944년 10월 3일~4일 개최된 경성후생악단 제11회 연주회 프로그램을 보면 이규용, 김학성, 박평수와 함께 현악4중주 첼로 주자로 모차르트의 미뉴에트, 도니제티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연주한 것으로 나옴.